

# 홍천시니어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2년 11월 (제102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운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 복지관 소식

## 훈훈한 겨울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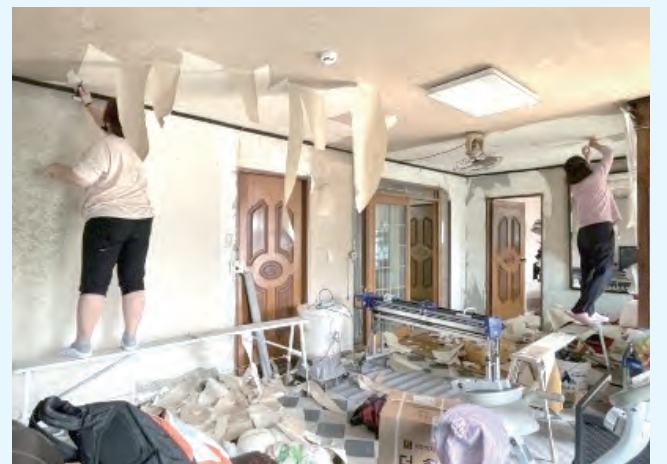
〈만원의 힘〉 지병임 회원

10월 14일(금), 만원의 힘 후원회원이자 노인복지관 '지병임' 이용회원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홀몸어르신 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난방유 지원금을 후원해 주셨다. 에너지취약계층 홀몸어르신 5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만원의 힘 후원

10월 17일(월), 만원의 힘 후원모임(회장 송의순)에서는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홍천읍 포함 10개 읍면지역의 홀몸어르신 100여명에게 환절기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동절기 방한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수타사 신도회 주거환경개선

10월 6일(수), 수타사(주지 화광 스님)와 수타사 신도회(회장 오승훈)는 홍천군노인복지관 추천가구인 화촌면 일원에서 2022년 주거환경개선 19번째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옛 농가주택으로 전기시설이 노후된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원거리 접근향상 프로그램



이동복지관 함께해요 우리마을

9월 29일(수) 내촌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어르신 중 한 분은 "오늘 같은 날에는 집안에서만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동료어르신과 함께 흥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참여해 주셨다.



홍노복카 시동을 걸다

9월 13일(화) 복지관에서 굴운리 거주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탁구공 옮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어르신은 "탁구공이 계란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순간순간 조심조심 옮겼던 것 같다" "다행히 탁구공을 무사히 옮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면서 아슬아슬했던 인생의 위기 순간을 잘 넘겼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하셨다.

## 자율이용 프로그램



홍천군노인복지관장배 게이트볼 대회

9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각 읍면 별로 게이트볼 리그전이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공이 무서웠는데 게이트볼 스포츠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어느새 공이 내 친구가 되었다"라면서 "이제는 자세도 제법 갖추고 스포츠에 푹 빠져서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뿌듯하다"라면서 소감을 밝혔다. 일년내내 즐길 수 게이트볼 스포츠가 대중화되길 바란다면서 끝맺음을 했다.

### CONTENTS

- 02 - 베이비붐 세대
- 03 - 지역소식(가리산 잣나무 숲)
- 04 - 지역탐방·생활칼럼
- 05 - 의미탐색·구독자 시
- 06 - 지역소식(가수 인순이 공연)
- 06 - 미래금융(미국의 금융과 자본)
- 07 - 인생칼럼·미래금융
- 08 - 평생학습 7탄
- 08 - 행복나눔빨래방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부부 파노라마**

70~8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중심에 베이비붐 세대는 서있었다. 어느 시기보다 치열한 경쟁과 헌신으로 한국경제 도약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가정보다 일이 먼저였고, 집보다 직장이 우선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 세대에 사회는 박수를 쳤고 '엄지 척' 격려를 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정을 위한 길이고, 회사에 헌신하는 것이 집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고 자신에게 위로를 보내며 살아왔다.

그러다 IMF 사태가 터졌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휴지조각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가정도 깨지고 개인의 삶도 무너졌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버티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효용가치가 다 된 그들은 감원이나 조기퇴직으로 결국 실업자가 되었다. 그나마 어찌어찌 버틴 사람들조차 곧 퇴직자의 길로 들어섰다.

아직도 일하기에 충분한 체력과 축적된 경험과 실력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이와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필요하다면 규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붙잡겠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베이비붐 세대가 하숙집이나 여관 같던 가정으로 내몰리듯 돌아왔다. 가족들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를 하는데 왜 자신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가.

**'수고하셨습니다'**

O씨(63세)는 작년 말 퇴직한 사람이다. 남들은 훨씬 전에 이리저리한 이유로 퇴직을 했지만 그는 사장의 고향후배라 정년을 넘어서 퇴직할 수 있었다. 사장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 온 평생직장이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법 견실한 중소기업이라 봉급도 웬만큼 되고 자리도 괜찮은 자리라 별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했고, 사장 가족이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워서 분골쇄신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지금의 아내와 사내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비록 번두리지만 집도 한 칸 마련하고, 두 아들과 딸 하나 키우면서 재미나게(?) 살았다. 이 모든 것이 회사가 마련해준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회사 일을 내 일로 알고 뛰니 집안일과 가족은 늘 뒷전이였다.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것 아닌가! 일 년 365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승진도 남보다 빨리 되고 집안 형편도 좋아지게 되었다. 가족여행, 부부나들이 한 번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꽃 피는 봄날 같은 미래가 있지 않은가.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나이는 더 빨리 달려가나 보다. 33년의 세월이 뭉쳐져 하나의 덩어리가 되

어 O씨 앞에 정지된 것처럼 서 있었다. '수고했어'라는 한 마디의 띠를 두른 채.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기념패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나중에 퇴직금도 넣어 주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참으로 오랜만에 그럴듯한 식당에서 축하(?)파티도 했다. 그날 가장 많이 들린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였다. O씨 자신도 그때는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그래, 33년 긴 세월을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

**'나 어떡해'**

퇴직한 다음 날부터 O씨는 쉬어야 될 존재가 되었다. 뭔가 하면 큰 일 날 것처럼 가족들이 만류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는 것조차도 어색했다. 그러나 가장 어색한 것은 직장생활만큼이나 오래 산 아내와의 관계였다. 전에는 아내와 몇 마디 말 이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얼굴 대하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특별히 아내와 대화할 주제나 내용이 없었다. 차려준 밥 먹고 출근했다 밤늦게 돌아와 자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퇴직하니 하루 종일 아내와 한 공간에 있게 된 것이다. 퇴직 이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느라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아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여행 같은 거... 까짓 해외여행도 괜찮지. 동남아가 그렇게 좋다는데.....

O씨는 아내에게 툭 던지듯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다. '당신하고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같이 가요!' 기대했던 반응은 착각이었나 보다. 아내에게는 여행가자는 내가 오히려 의외였는가?

O씨는 퇴직 이후의 삶은 쉽고 여유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이야 이제 제 앞가림은 하고 사니 평평 쓰지는 못해도 쪼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가시방석에 앉은 꼴이 되고 말았다.

아내는 숨이 막힐 것 같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했다. 퇴직하면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소파에 편안히 앉아 독서도 하고 가끔 영화감상이나 하면서 지내게 될 것 같았었다. 일만 하느라 만나던 친구도 없고 딱히 어디 찾아 나설 데도 없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O씨보다 훨씬 일찍 퇴직해서 나름대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직장 후배들을 만나보려니 그들에게 일만 독려했지 살갑게 대해준 적도 없어서 그런지 슬슬 괴하는 것 같다. O씨는 대부분 집에 틀어박혀 있게 되고 혼자서 라면이나 끓여먹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

퇴직할 때에 '수고했다'고 한 말은 입에 발린 소리였나? 아내는 갈수록 짜증만 내고 자식들은 언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듯이 핀잔주고 따지고 든다. O씨는 즐지에 개밥에 도토리가 된 기분이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없이 죽어라 일한 죄 밖에 없는데. 그는 억울했다. 그리고 분노가 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영화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절규하고 있다.

세월이 빠르다지만 앞으로 2~30년을 이렇게 살게 될까봐 겁이 났다. 오래전에 본 영화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인생이 망가진 주인공 김영호(설경구 분)가 야유회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나 어떡해' 노래를 부르다 철로 길에 올라 달려오는 열차를 마주대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는 장면. 이 장면이 O씨의 지금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그는 한숨을 토해내며 얇은 신음소리를 냈다. '나 어떡해'

성문영 기자(sung-goodnews@hanmail.net)



지역소식

가리산 잣나무 숲

#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길을 만나다



◇가리산 잣나무숲



◇산림정화구역 안내문

홍천에도 아름다운 잣나무 숲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몇 해 전 가리산 잣나무 숲이 '5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 숲'으로 선정되었다.

홍천군의 군목인 잣나무의 잣 생산량이 전국의 70%를 넘는 잣나무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수종으로서, "사계절 늘 푸른" 군민이 변하지 않는 향토애와 "강직한 기상"을 상징하고 있다.

잣나무는 접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생으로만 키워 모든 나무가 직립으로 곧게 자란다.

잣나무는 씨앗에서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까지는 1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며, 잣을 채취하려면 보통 20~30m 정도의 잣나무를 올라가야 채취할 수 있기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그래서 잣을 채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원숭이를 훈련시켜 잣을 채취하려고 했지만, 원숭이가 잣 맛을 알고부터 잣을 따기보다는 먹는 것에 열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 잣을 채취하는 시기는 9월부터인데 이렇게 어렵게 채취한 잣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홍천 명품 잣 영농조합법인" 김송근 공장장에게 잣의 채집 과정과 유통과정을 직접 들어보았다.

**기자:** 어떻게 잣을 채취해서 생산하게 되었는지요?

**취재원:** 잣 채취하는 시기는 9월부터이다. 잣 채취 경력 15년을 토대로 잣 공장을 국비 50% 지방비 20% 지원과 자부담 30%를 기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잣나무에서 잣을 수확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요.

**취재원:** 홍천군에서 잣을 채취하는 분은 대략 200명 정도이며, 잣 채취를 위해서는 잣산을 임대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채취합니

다. 잣이 알이 차려면 꽃이 피고 수정되어 잣 송아리가 되기까지 18개월 걸립니다.

**기자:** 잣의 판매과정은 어떤 경로로 하시는지요?

**취재원:** 방문 구매 전화주문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으나 군의 홍보가 미흡하여 찾는 이가 소수입니다.

**기자:** 잣 판매의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지요?

**취재원:** 기후 온난화로 잣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잣의 가격이 상승하는 점과 수입품이 판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기자:** 홍천군에 바라는 것은?

**취재원:** "홍천하면 잣"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더욱 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옥수수처럼 홍보를 많이 하면서 잣에 대한 행사는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잣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리적표시제를 군에서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기후변화) 홍천 잣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장인 정신에 숙연해졌다.

잣에는 지방유가 약 74% 정도 들어 있어 냉동실에 보관해도 얼지 않아 오래도록 식감을 유지하며,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이 복용하면 폐의 기능을 정상으로 이끌면서 기침을 멈추게도 한다. 또, 수척하고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기운이 소생하며, 고서적에는 잣을 100일동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300일을 먹으면 하루 500리를 걷고, 꾸준히 오래 섭취하면 신선이 된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식품이라고 한다.

밤 하면 정안, 배 하면 나주... 이렇게 지역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특히 잣을 홍보하는 데는 잣나무의 숲길 조성이 필요하다.



경기도 축령산에 '치유의 숲'이라는 잣나무 숲길이 있는데 입소문을 타고 연간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군의 적극적인 홍보로 잣의 소비 판매도 좋아졌다.

홍천에도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길'이 있다.

가리산 일대 6,600여 ha의 국유림을 산림경영단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국내 최대 잣나무 숲 단지가 1,800ha에 40년 이상의 잣나무들이 아름답디 자라고 있어 잣 향기가 가득하게 펼쳐져 싱그러운 잣 향기를 선사한다. 산림청은 가리산을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또 이곳의 잣나무숲을 '5월 국유림 명품 숲'으로 선정했다.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 방문·체험 안내는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되는데 일반인이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홍천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힐링도 하고 홍천의 잣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지역탐방

홍천무궁화 테마파크

# 사계절 힐링 가능 홍천 대표 산책로 '무궁화 테마파크'



## 야외놀이터·자연관찰 코스 온가족 위한 장소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보행약자 이용 용이

“여행 중 들러서 상쾌한 공기 한번 들이쉬고 가세요.”

총면적 19,559㎡ 무궁화 약 5,700본이 식재된 무궁화 테마파크는 지난 2019년 홍천군 무궁화명소 2호로 선정되었다. 이곳은 홍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해 서쪽방향으로 도보로 닿는 것이 가능하다.

무궁화 테마파크를 향해 걷다보면 왼쪽으로 맑은 강이 내려다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곳부터 북방면'이라는 팻말이 서 있다. 완만한 언덕길이 끝날 때 쯤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소나무가 빼곡히 서있는 송학산 산책로가 있다.

오래 전부터 이곳은 소나무와 학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송학산'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소나무는 여전히 가득하지만 학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백로의 터전이 되었다. 송림 사이로 조성된 산림욕장 바로 옆엔 홍천강이 흐르고 소나

무길을 따라 가면 그곳에는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무장애 나눔길은 나무데크로 경사가 높지 않고 평평하게 잘 닦여 있어 유아부터 노인, 몸이 불편한 보행약자, 일반인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소외되는 사람없이 누구라도 산림체험할 수 있다.

길을 따라 걷다보면 '송학정'이라는 정자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잠시 멈춰 홍천읍내를 관망하며 산 속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주위를 다시 둘러보면 흙길이 보인다. 길게 이어진 흙길 산책로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봄이면 들꽃들이 여름이면 짙은 녹음과 흙냄새가 겨울이면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쾌함이 있다. 지금 가을에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귀를

간지럽히며 풍요로운 마음을 선물한다.

홍천을 방문한 한 관광객은 “홍천 도심 인근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 홍천주민들이 부럽다. 유명 관광지만 방문했는데 우연히 방문해보니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기에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천 무궁화 테마파크는 아이들을 위한 야외놀이터, 자연관찰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무궁화를 비롯한 다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수련이 피는 연못도 있다. 또한 파고라 운동기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산림욕장에는 멋드러진 정자도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무성한 소나무가 피톤치드를 뿌려주고 있고, 건강한 트레킹이 가능한 이곳 무궁화 테마파크는 입장료와 주차료가 모두 무료다.

그리고 맑은 공기와 힐링의 여유까지 한도 없는 무료로 홍천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홍천주민들 모두 자주 들러 일상을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생활칼럼

##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의 크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지간에 노력한 만큼 그것에 따른 댓가가 주어진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한다. 오늘은 꽃꽂이를 배우는 날이다. 꽃꽂이를 해 본 기억이 머릿속에 가물거린다. 그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참 오래 되었다.

아주 오랜만에 옛날의 추억, 그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고자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꽃꽂이 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모두가 표정이 밝다.

강사님의 손에는 울긋불긋 단풍잎, 아름다운 꽃들이 손에 한 가득 들려 있었다. 꽃들이 분배가 되고 꽃꽂이 강의가 시작된다. 꽃들을 자르고 오아시스에 예쁘게 꽂아서 아름답게 장식을 시작한다. 저마다 꽃꽂이

에 분주하다. 같은 꽃이라도 꽃꽂이 모양은 제각각 다르다.

강사님이 꽃꽂이의 제목을 붙여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 라는 제목을 붙여서 꽂았다. 내 책상 위에 올려 두고 매일 아침마다 꽃을 바라본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하지만 이미 행복한 하루는 시작되고 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naver.com)



의미탐색

노인

# 노인의 의미

10월 1일은 199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영화롭게 된 것은 지금 이 시대까지 산전수전(山戰水戰) 온갖 역경을 겪고서 자리를 지켜주는 어르신들의 수고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옛 우리의 선조이야기를 잠시 빌리면 조선시대까지는 70세에 이르면 나라가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국장(國杖)을 하사했고, 80세에는 임금의 내린다고 해서 주장(朝杖)을 하사했다고 한다. 국장(國杖)이라 함은 나라지팡이를 말한다고 한다.

즉, 70년 가까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나라에게, 후손에게 큰 덕이 된다는 의미에서 나라국이라는 한자어를 빌려왔다. 주장(朝杖)이라 함은 마을 또는 고을의 이름을 딴 것으로 80세에 이르면 마을의 큰 경사요 잔치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려장(靑藜杖)이라는 장수 지팡이를 보낸다.

지난 5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흥천군에서도 사회단체 및 각 읍면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흥천읍을 포함하여 10개 읍면별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각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바쁜 수확철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참석해 빛내주었다.

즉, 어르신들은 일평생 농사꾼으로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농사에만 전념하실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흥천군에서 농민에 대한 지원에만 관심을 갖는 차원을 넘어서 노인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기타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읍면 단위로 진행된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해 노인복지유공자에게는 감사표창을, 어르신 및 면민에게는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격려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식 기자(dong-sik@naver.com)

# 구독자 시

## 실과 여유 (1)

구독자: 이강순

높은 빌딩 숲 아래로 햇빛을 가린 나무 그늘 그 사이로 도시인들에게는 달콤한 커피한잔의 여유

드넓은 황금물결 그 사이사이로 햇빛을 가린 구름 그 아래로 농민들에게는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의 여유

나는 농촌에서 봄과 여름을 맞이했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으며 겨울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봄과 여름을 지내며 고사리를 꺾고 고구마와 감자를 캐으며, 배추와 무를 심었고 겨울이 찾아와 무를 캐고 시래기를 넣어 말린다

## 실과 여유 (2)

구독자: 이강순

도시사람들이 가끔씩 놀러와서 체험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 밭을 갈아 엮는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 사람들이 놀러와서 하는 행동을 알뜰게만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거나 천둥 번개라도 치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하릴없이 물끄러미 빈 논과 빈 밭을 내다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농부의 여유다. 그래,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 행복은 어디에? (1)

구독자: 조소연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속에서 매일 매일 나의 영혼이 희미해져만 간다

누군가가 내게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고난은 내 옆에 있다고, 답한다

누군가가 내게 행복이 당신 옆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행복은 내 곁에 없다고, 답한다

고난과 행복은 손가락 한 끝 차이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보이고 행복을 느껴보면 행복이 느껴질까!

## 행복은 어디에? (2)

구독자: 조소연

오늘도 사별의 아픔속에서 기쁨을 찾아간다

오늘도 사별의 아픔속에서 행복을 찾아간다

기쁨을 찾아가는 것도 내 몫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내 몫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이 보이고 바다를 바라보면 행복이 보인다.

## 기와의 담긴 사랑





**지역소식**

**가수 인순이 공연**

# 가수 인순이의 버스킹 공연



지난 10월 2일(일), 15시부터 17시까지, 가수 인순이는 버스킹 공연을 홍천무궁화수목원 무궁화의 집 앞에서 실시했다. 인순이씨는 44년 가수인생 처음으로 길거리 공연을 나섰다. 대중가수가 길거리 공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길거리공연은 그만큼 무대장치 및 부속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본인의 공연을 마음껏 뽐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수 인순이씨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막이 열렸다. 인순이씨의 공연 중간중간에는 맥시큐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의 노래 열창과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클래식 연주 등이 더해져 참여했던 많은 관람객의 뜨거운 박수가 더해졌다.

인순이씨는 감사인사와 함께 음악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남겨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공연관람에 참여했던 모든 사

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즉, 가수 인순이씨가 금번 길거리 공연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Talk(토크)는 지속가능한 여행이야기라는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 지속가능한 여행이란, 여행은 현지의 환경을 해치고, 현지에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는 등 자연에 대한 훼손과 현지에 온통 쓰레기만 남겨 놓는 여행을 반대하며 나타난 오늘날의 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제는 더 이상 현지인들의 생활터전을 해치지 않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나름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행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여행은 지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일이 그 전부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진 것이다.

가수 인순이씨의 버스킹 공연은 노래와 재즈, 기타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악기가 어우러져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와 열광속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신영재 군수의 끝인사말과 인순이씨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는 공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금일 공연장소인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공연장을 찾는 이들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 꽃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프로그램**

**치매어르신 인지활동**

## 치매어르신 인지활동



◇어르신께서 밑그림 안에 나무 조각을 맞추는 모습

“이것은 뭘데... 이렇게 생겼대우?”  
어르신께서 다양한 모양의 나무 조각을 손으로 만져 보십니다. 촉감은 부드럽지만 나무를 잘라서 왜 이렇



◇나무퍼즐 완성된 모습

게 조각을 내어 만들었는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새 모양이 그려있는 밑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니 어

르신께서 한참을 있다가 밑그림 안에 나무 조각을 집어 넣어봅니다. 쉽게 잘 맞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위쪽으로 세워보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눕혀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르신께서 나무퍼즐 모양을 맞추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보다는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어르신의 대화에 몇 마디 더해봅니다. 어르신께서는 환하게 웃으십니다.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박경임 기자(qkruddla8706@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이 지구상에 터 잡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동족번식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식물은 씨앗에서 발아되는 순간부터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 물과 영양을 끌어올리고 잎은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발돋움하며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동물도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거대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양육강식의 먹이사슬 속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 종족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 역시 신체적으로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지능을 이용하여 만물에 우위를 차지하고 살아가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게 잘 살면서도 살겠다는 말보다는 죽겠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하면서 산다.

일을 하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미워 죽겠다. 회사가기 싫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하다하다 아이고 그냥 죽겠다.

왜 죽겠다고 할까? 죽음은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건

죽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기어기 붙이고야 만다. 뱉어낸 말의 문을 닫으려면 '죽겠다'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처럼.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죽겠다.

물론 이때의 '죽다'는 보조 형용사로, '앞말이 뜻하는 상태나 느낌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좋아서 죽겠다. 신나서 죽겠다고도 한다. 여름 같으면 더워서

죽고 싶다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죽겠다"는 말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말은 유행어에 밀려서 퇴락하고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는데 "죽겠다"는 말은 세월과 환경에 관계없이 건재하고 있다.

지난날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생존에 대한 총괄적인 표현이 "죽겠다"고 하였으면 지금같이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 "죽겠다"는 것은 정서적 궁핍에서 오는 삶의 질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한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면, 더 힘들어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말하면, 더 어려워지고, "죽겠다" "죽겠다" 말하면, 고통스러운 일만 생겨난다. "잘 된다" "잘 된다" 말하면, 안 될 일도 잘되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온다.

죽겠다고 혼잣말로 하지만, 운명의 귀는 내 생각을 감지하고,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한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로 바꾸면 좋겠다.

### 죽겠다는 말 많이도 하며 산다

데 정말 이토록 살기가 힘들어서 죽겠다는 것일까? 그러나 죽겠다는 말도 실없는 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맛난 음식을 먹고도 배불러 죽겠다. 술 취해 죽겠다. 먹기 싫어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예뻐 죽겠다. 신나서 죽겠다.

말끝에 '죽겠다'는 말을 접미사와 같이 더 붙이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미 싫다, 힘들다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냥 싫다, 힘들다, 피곤하다고 말해도 되는데. 거기에 '죽

죽겠다는 말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좋아서 죽겠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 그러나 죽겠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죽고 싶다"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죽겠다는 것은 외부에 의한 고통이나 변화를 가지고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지만 "죽고 싶다"는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말투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살기 힘든 것만은 사실이기에 살겠다. 살고 싶다는 말보다는 죽겠다

미래금융

미국의 금융과 자본

## 2008년 금융 붕괴, 리먼 사태

경제에 있어 돈은 혈액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돈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은 중앙은행과 각 투자은행들이다. 어느 순간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나 굵은 핏줄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곧 죽음 아니면 심한 신체의 이상이 뒤따른다. 이와 같이 혈액 즉, 돈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 은행의 파산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의 파산이 그 경우였다.

리먼 브라더스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메릴린치(Merrill Lynch)에 뒤이어 세계 4위의 거대 투자은행이었다. 이 거대 은행이 2008년 9월 15일 새벽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사건은 향후 10여년에 걸친 세계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발단은 무엇일까.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Fed) 의장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대출을 확대하였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1등급인 프라이م, 2등급인 알트-에이, 3등급인 서브프라임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은행들도 신용을 따져 처음에는 우량한 프라이م 모기지론의 상품대출을 해주었지만 점점 상승해가는 부동산 가격을 바탕으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모기지론의 증권화였다. 금융

사들은 이 서브프리임 모기지론을 통해 구입한 주택의 저당권을 활용해 '주택저당증권(MBS)'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냈다. MBS는 쉽게 말하면 예치되어있어야 할 저당권을 재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미래에 받을 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일종의 자산 유통화다. 당연히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고 거품은 커지고 있었다. '주택저당증권(MBS)'은 다시 채권과 섞어 새로운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만들어 냈는데, 사실 MBS와 CDO는 각종 채권이 섞여있어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리스크를 찾아내기는 불가능하였다. 마치 판돈을 건 도박사의 뒤에 다른 제2의 도박사가 있고, 그 뒤에 또 제3의 도박사가 있어 판돈을 건 도박사가 잃으면 그 뒤에 연쇄적으로 잃게 되는 우스운 도박 플레이에 비유할 수 있을까?

결국 경기과열을 우려하던 미국 정부가 전해년도 1~2%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006년 6월 5.25%까지 인상하자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며 담보 매물이 헐값으로 쏟아져 나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연계된 MBS나 CDO의 가격은 함께 추락했고 이들 파생상품을 사들였던 리먼 브라더스를 포함한 세계 금융회사들은 순식간에 파산위기로 몰리게 된 것이다.

미국 연준은 리먼을 살리며 다각도로 타진했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은행도 리먼 브라더스의 일부분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당시의 신문논조, 국회의 국정감사로 계획이 무산되니 이는 당시 출범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게 되어 다행히도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었다.

금융회사의 파산은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본래 금융회사는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의 자본을 유치한 뒤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제한 후 수익을 취하는 구조다. 또한 자기자본과 고객자산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파산만으로는 고객 자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단이 청산과정에서 고객들의 자산 중 손실이 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남은 자산의 회수에 들어가면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게 된다. 커다란 금융사가 망하게 될 경우 대규모 자산이 매도되어 다른 건전한 금융사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쇄 파산을 불러온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리먼 사태 이후로 미 정부는 지금까지 또 다시 많은 돈을 풀었다. 2018년 이후로 서서히 유동성을 줄여나가던 차에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고 미국 연준은 또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특이 상황에도 세계의 주가 지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 2022년부터 다시 미국은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며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2008년 리먼 사태의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현재는 기준금리를 높이며 유동성을 줄이고 경제도 살리려는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나 급격한 금리인상이 제2의 리먼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 어느 쪽이다 단언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 행복한 등갯길 연주회 “홍천 오카리나 앙상블”

홍천군 평생학습 교육중 2013년부터 진행되어온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지원에 따른 악기로 배우는 취미 활동으로 홍천군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운영중인 “홍천 오카리나 앙상블”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오카리나는 악기를 배우는 것에 낯설어하고 악기의 가격이 비싸 쉽게 접근하지 못하며, 악기는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 중의 하나이다.

오카리나는 오카(Oca-거위)와 리나(Rina-작고 귀여운)의 합성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이며 손안에 들어오는 주먹악기이며 자연의 소리와 가장 근접한 악기로 나무, 플라스틱, 유리, 금속제, 뼈,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고 현재는 흙으로 만든 피리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쓰이고 있다.

구멍의 개수에 따라 더블 오카리나, 트리플 오카리나로 나뉘어져 있고 자연 친화적이고 목가적인 음식과 함께 화성 연주도 가능하다.

홍천군 평생학습 오카리나 프로그램에서 8년차이신 강성현 강사님은 오카리나 뿐 아니라, 우쿨렐레도 강습 중이시며 플룻 연주도 하시는 등 악기에 다재다능한 강사님 이시다.

올해 “2022년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제7회 홍천군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발표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 이어 19년도에는 작은

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던 “홍천 오카리나 앙상블”은 지난 9월 27일 홍천군 서면 반곡초등학교에서 “등갯길 음악회”라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반곡초등학교는 전교생 23명의 작은 학교로 아침 등갯길에 라이브 연주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 연주자와 학생들간에 음악이라는 매체로 교감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연주곡들은 “피노키오”, “숲속을 걸어요” “아름다운 베르네” 등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발췌해 친숙하게 접할수 있는 곡으로 선정했다고 하며, 강성현 강사님도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명한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을 플룻으로 연주하여 환호를 받았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동안 학생들은 합창으로 화답해 가을 아침 고즈넉한 공기를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등갯길을 만들어 준 회원분들에게 따뜻한 박수로 맞이했고, 같이 노래 하던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천상의 소리같아 오히려 회원분들이 힐링받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연주 사이 사이 해설을 맡아주신 이희숙 회장님은 8년전 처음 오카리나를 접했을 때 악보도 볼 줄 모르다가 지금은 어떤 곡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기량이 향상되었다고 하시며, 회원분들의 참여도도 높아 평균 나이 65세로 90프로 이상의 출석률을 자랑하셨다.

악기를 배워서 좋은 점에 대해서 문자 좋은 만남을 가



질 수 있어서 좋고, 매주 연주하러 오는 길이 즐겁고 어떤 장소에서나 휴대가 간편하고 악기 값이 저렴해서 어르신 분들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깊어가는 가을밤

한국식 오카리나 연주로 유명한 김준모님의 “山寺”를 들으며 만추의 그윽한 향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과 가장 어울리는 목가적인 음식의 악기로 강추하며 홍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분들의 1인 1악기 연주로 “홍천 오카리나 앙상블”과 오카리나 연주에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 행복나눔 빨래방

# 망구(望九)를 지난 노부부의 사랑이야기

“조그만 먹거리라도 있으면 나를 기다렸다가 꼭 같이 먹는 다우~”

우유가방을 들고 대문을 들어서니 벌써 두 분께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열린 문 틈 사이로 살며시 새어 나온다.

오늘도 무슨 하실 이야기들이 그렇게도 많으신지... 우유배달을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누워 계신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계신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려서 남쪽으로 내려와 홍천일원에서 주로 사셨다고 한다. 할머니도 홍천 서석이 고향이시며 평생을 홍천 관내를 떠나보신 적이 없다고 하신다. 8090세대 모두의 이야기겠지만 두 분도 모두 젊은 시절 고생스럽게 살아오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시는 중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촉촉한 눈물이 여린다.

할아버지와 동갑내기이신 할머니께서는 어려서 눈병을 심하게 앓아 지금까지도 사물을 분별할 정도로만 시력을 유지하고 계셔서 바깥 외출이 자유스럽지 않아 주로 집안에서 생활한다고 하신다.

할머니께서는 동네사람들이 극구 말리는 이사를 아



◇이명오 할아버님과 송명옥 할머니

버지가 강행하여 자신이 눈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 시절 의료혜택이 빈약하던 농촌살이에 병치레가 쉽지 않았던 결과이겠지만 자신의 눈병(시력상실)의 결과를 ‘삼삼방’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삼삼방(三三方)의 뜻을 찾아보니 ‘살이 낀 곳으로 이사를 하여 화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었다.

젊은 시절 두분 모두가 어렵게 생활해 오시다가 20

여년전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같이 사시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힘들게 살아온 지난 기억들을 지우기 위한 지혜 때문인지 두분 사이의 애뜻한 배려와 사랑이 뚝뚝 배어 나온다.

“이 양반은 조그만 먹거리라도 있으면 나를 기다렸다가 꼭 같이 먹는다”는 할아버지의 한마디에서 할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무한 신뢰와 사랑이 뚝뚝 묻어 난다.

요즘 황혼이혼이나 졸혼 등이 노년생활의 일부 인양 기사거리가 되는 세태를 보면서 망구(望九)를 지난 나이에 이렇듯 두 분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화기에애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참고 이해하며 상대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평범함이 비결이라면 비결 같아 보인다.

이명오 할아버님, 송명옥 할머니 아무쪼록 젊은 날의 힘들었던 기억일랑 모두 떨쳐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남은 여생을 지금처럼 은은한 사랑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방문 땀 또 두 분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며 대문을 들어서시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어르신 댁 방문을 기다려 봅니다.

박호관 기자(hokwan\_park@daum.net)